

1. 나는 어릴 때(1964년) 우표 수집이 취미였다. 어느 날 내가 수집한 중국, 일본 우표 사이에 글자가 다른 우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 북한 우표였다. 그 후 한글이 한자(중국어)와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우표는 정치적 선전 내용이 들어간 것이었고 1962~3년에 나온 것이었다.

2. 나는 동독 출신이어서 당시 동독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동구권은 가능-체코, 폴란드, 헝가리) 북한에 유학을 가기 전에 상상한 북한은 명승지가 많은 곳 그리고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생각했었다.

3. 북한 평양에 유학을 온 나는 러시아식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건물은 외국인 학생 전용이었다. 250명이 살 수 있는 건물이었지만 25명 밖에 살지 않았다. 절반이 중국 학생, 소련 3명, 폴란드 1명, 루마니아 2명, 알바니아 2명 정도였다.

4. 내가 기숙사에는 '동숙생' 이라는 같이 사는 북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매일 밤 내가 하루 종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딘가로 가서 보고하고 오곤 했다. 그 친구는 독일어문학을 전공한 친구였다. 하지만 나를 동료처럼 대하지 않았고 나를 간부처럼 대했다. 2년 동안 살면서 "입니다, 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말을 절대 쓰지 않았다.

5. 북한에서 유학하면서 고립을 많이 당했다. 내가 공부하러 가야 될 건물은 사회학부 건물인데 항상 자연학부 건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어쩌다 사회학부 건물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건물 내부에 포스터나 신문 등 정치 선전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다 치우고 뜯어낸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북한에서는 나를 북한의 정치적인 내용을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간첩으로 보았던 것 같다.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을 하였다고 하고 조선언어학을 전공함.)

6. 북한은 1970년대 중순부터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정하였지만 1980년 정식 후계자로 세상에 발표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북한 사람들도 혈육계승이 맑스주의와 다른 거라 어색해 했다. 그러나 내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건 無궤도 전차(전기로 달리는)에 타서 대동강을 건너가는 중에 차량 뒤쪽에 '처녀동무'(차장)가 '김정일이 하나 밖에 없는 후계자다!' 라고 외치는 걸 듣게 되었다. 차장이 우리들을 보지 못했기에 들을 수 있었다. 1978년쯤

7. 내가 평양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처음 일년 정도는 내가 보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감시원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이후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이상은 감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평양 중심부에 있는 곳은 다 가보았고 지하철을 많이 탔다. 평양 밖, 농촌 지역은 가보지 못했다.

8. 내가 지낸 기숙사에는 식당, 이발소, 도서실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다. 기숙사와 교사건물은 약 400m 떨어져 있었지만 고부와 잠자는 것 이외에도 기숙사 주변을 많이 돌아 다녔다. 매주 독일 대사관에 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잘 안가고 동독에서 온 식료품이 필요할 때만 가곤 했는데 북한 말에는 '자유주의를 피우다' 라는 게 있다 집단주의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은 문제삼지 않았다. 정말 북한에 비해서 동독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주의적인 나라였다.

9. 내가 가장 뚜렷이 기억하는 일이다. 어느 10월 중순 날 기숙사 뒷마당에서 화물차가 배추를 실어다 놓고 기숙사 직원이 모두 나와 김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기로 2장 찍었는데 기숙사 책임자 동지가 와서 2시간 동안 왜 아주머니들이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일하는 장면을 촬영했냐며 나를 비판하였다. 나는 동독에서 배운 미술수업시간에는 제일 좋은 것은 '제철소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묘사하는 것이 명작이다' 라고 배운 걸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장면을 찍는 것은 우리 북조선을 욕하는 것이고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나는 그때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너무나 다른걸 알게 되었다. (기숙사 앞 쪽은 큰길이고 나는 뒷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쪽에 살고 있었다.)

10. 나는 80년대 말 2년 동안 북한의 출판사에서 잠시 일했다. 그때 나는 같이 일하는 북한 동무에게 북한 홍보 선전물은 오히려 '역선전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연출된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좋게 선전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출판물들은 7개 언어로 만들어 다른 나라에 보내어진다.)

11. 나는 2년 동안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나와 같이 간 친구와 같이 한 선생님 밑에서 졸공 배웠다. 더군다나 소련에서 온 친구는 5년 동안 혼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한번도 북한 학생들과 같이 강의를 받지 못했다.

12. 나를 가르친 권승모 교수님은 조선 말을 잘 가르치었다. 그 당시 독.조 사전은 있었으나 조.독 사전은 없던 때인데 나는 서독에서 구입한 한.독 사전(을지문화사 1974년 발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 교수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나는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내가 한.독 사전을 쓰는 걸 보고 사전을 한번 보자고 하였다. 교수님은 "사전이 이게 무슨 사전이야?! 조선말도 아니고 다 외래어다!!" 라고 하셨다.

13. 부자지간(父子之間): 평양 유학시절 강독수업에서 부자지간이라는 단어가 나와 나는 교수님께 질문을 했다. 이 단어가 남자의 불알과 자지(성기)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본 뜻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관계)

14. 나는 1989년 평야에서 열린 세계학생축전에 참가했다. 당시 남한에서 온 임수경도 만났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평양 운동장에서 본 폭죽행사는 상상을 초월했다. 30분 정도 터지는 불꽃을 보면서 안타깝고 어색했다. 불꽃이 올라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15. 독일 통일 후 동독과 북한이 수교가 끊어져 북한에 갈 수 없었다. 그 후 독일 국회 대표단좌익당 대표와 같이 2001년 북한으로 가는 고려 민항기 안에서 잡지를 펼쳐보니 12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모내기 기계에 앉아있는 처녀동무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아는 Helga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부에서 미국 정부부 요원이 앉아 있다. 왜냐면 항상 反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16. 2001년 겨울 독일은 북한과의 수교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추운 겨울날 평양 고려호텔에 난방이 안되어 전기히터로 온기를 유지했고 외교부 면담 장에서는 말할 때 입에서 김이 나올 정도였다. 그 당시 북한에서 가장 따뜻한 유일한 곳은 북한에서 제공한 1970대식 벤츠 승용차였는데 이유는 히터를 틀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7. 2007년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평안남도 구장 읍을 갔는데 그냥 놓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당 간부로부터 들은 그 이유는 시멘트, 방직공장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기 좋았던 것은 보통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갔는데 발코니에 비둘기가 있었다. 집 주인은 비둘기를 새장 안에 키우고 있었다.

18. 북한의 지도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통 사람의 교통수단은 사람의 다리이다. 고속도로 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심지어 가운데 앉아서 소풍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차들이 잘 다니지 않고, 멀리서 차가 오는 걸 보면 옆으로 조금 치워 지나가게 한다.

19. 나는 대동강에서 사람들이 헤엄치는 걸 보았다. 평양의 학교에서는 수영을 가르친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수영을 못한다고 한다. 수영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양은 마치 고립된 섬과 같다.